스피드 업 최지민 "중요한 순간에 올라가고파"

KIA 고졸 2년차, 직구 140㎞ 중반 넘으며 성장세
"공격적이고 정교한 투구로 타자들과 승부하겠다"

KIA 타이거즈 좌완 최지민이 스피드 상승과 함께 자신 있는 투구를 이어가면서 불펜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전에서 역투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스피드로 자신감을 올린 좌완 최지민이 '긴박한 승부'를 꿈꾼다.

KIA 타이거즈 마운드는 올 시즌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큼 고졸 2년 차 최지민의 초반 행보가 반갑다.

지난 시즌 6경기에 나와 6이닝을 던지면서 13.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최지민은 지난 25일 NC전을 통해서 시즌 7번째 경기를 소화했다. 지난해 6사사구를 남겼던 최지민은 올 시즌 9이닝을 던지면서 3개의 볼넷과 함께 3.0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구가 140㎞ 중반을 넘어서면서 스피드에서 눈에 띈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질롱코리아 소속으로 호주리그를 경험한 게 최지민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최지민은 "질롱 가서 자신감이 생겼다. 많은 상황을 경험한 게 도움이 됐다.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나왔던 것 같다"며 "구속이 올라오니까 타자들도 좀 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스피드가 되니까 자신감도 생긴다. 지금은 스피드가 유지되면서 이제 확실히 내 것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과 달리 차분하게 경기를 나가면서 쌓는 경험도 최지민의 힘이 되고 있다.

최지민은 "시즌 처음 개막 후 던졌을 때는 긴장해 위축되기도 했다. 이제 경기를 많이 나가면서 괜찮아졌다. 내 공을 던질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계속 컨트롤에 문제가 있어서 캠프 때부터 제구력을 생각하면서 던졌다. 타자들이 잘 못치는 코너 코너로 집어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2년 차 어린 선수인 만큼 경기를 지켜보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만으로도 큰 공부가 된다.

최지민은 "경기를 보면서도 많이 늘고 있고 선배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줘 공부 많이 하고 있다. 어제 등판할 때도 (김)대유 선배가 점수 차가 크게 나서 타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피하지 말고 승부하라고 이야기해줬다"며 "아직도 등판하면 긴장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코치님들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는 게 뒤에 막아줄 형들 많으니까 자신 있게 던지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해준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활약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지만 아직 최지민은 목이 마르다.

최지민은 "아직 내자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가면 잘 던지고 싶고, 잘 보이고 싶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다. 팀이 중요한 상황에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그런 상황에 올라가게 된다면 감독님이 믿고 올려주시는 것이다"고 목표를 언급했다.

다음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세밀함'이다.

최지민은 "포수들이 원하는 곳에 던지는 게 중요하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야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며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인 상대가 키움 이정후 선배였다. 지난 고척 경기 때 두 번 상대했는데 바뀌자 마자 초구부터 돌렸다. 다음에는 좀 더 정교하게 코너 코너로 승부해 이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했는데… 편한 해설로 선수들과 뛰겠다"

이대형 스포티비 해설위원

부상으로 이른 은퇴 아쉽고
여전히 그라운드 그리워
선수들 부상없이 실력 발휘하길

"편한 해설로 선수들과 함께 뛰겠다"며 '해설위원' 이대형이 각오를 밝혔다.

'슈퍼 소닉'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던 이대형이 마이크를 쥐고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광주일고를 나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2003년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통산 505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전준호(549개), 이종범(510개)에 이어 KBO리그 통산 도루 3위에 이름을 올린 '대도'다.

부상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시간 그라운드를 누볐을지 모르지만 2017시즌 도루를 하다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기량 회복에 실패하면서 2019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부상을 당한 2017시즌 전까지 3년 연속 3할 고지를 넘으면서 103개의 도루도 기록했던 만큼 아쉬웠던 부상과 은퇴였다. 고요히 그라운드와 작별했던 그는 올 시즌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지난 시즌 LG-KIA전에서 특별해설위원을 맡았던 이대형은 올 시즌에는 스포티비의 정식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1년 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을 수 없는 야구 인생을 보냈던 '고향팀' KIA 덕아웃을 찾기도 했다. KIA와 한화전 해설을 위해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그는 "선수 시절에 말을 많이 안 했다. 인터뷰 안 하는 선수로 유명했다. KIA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은 말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해설위원을 하고 있다"고 웃었다.

선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은 지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대형은 그라운드가 그립다.

이대형은 "오랜만에 오니까 반가운 사람들도 많고 옛 생각도 많이 난다. 박찬호와 캠프 때 룸메이트였다. 당시 신인이었는데 벌써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며 "취재를 위해 그라운드에 내려오면 더 뛰고 싶은 마음이다. 현역 시절 생각이 새록새록 난다"고 말했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선수였던 이대형은 부상으로 아쉽게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만큼 후배들의 부상이 더 안타깝다.

이대형은 "현역 막판에 큰 부상을 당해 아쉬움은 더 컸다. 근육 관련 부상이 한 번도 없었다. 잔 부상이 없었다"며 "김도영은 올 시즌 가장 기대했던 선수 중 한 명이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출발도 좋았던 만큼 안타깝다"고 KBO 특급 발 계보를 이을 후배의 부상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이다. 부상 없이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스파이크 하나도 자기 발에 맞춰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요즘은 스파이크가 높게 나온다. 발바닥이 더 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이 뛰는 선수들에게는 부상 위험이 있기도 하다. 장비들도 세세하게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대형은 후배들에게 '열정적인 플레이'도 주문했다.

이대형은 "야구계에 좋지 않은 일이 많아서 걱정이 많은 시즌이었다. 그런데 팬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고 계신다.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잊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설자로 후배들과 함께 뛰면서 응원군이 될 생각이다.

이대형은 "해설을 하면 못 보던 것들도 보인다. 열심히 배우고 있다"며 "듣기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하는 게 목표다. 야구를 조금 모르시더라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해설을 하고 싶다. 야구 용어들도 어렵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비상시국' 토트넘 운명의 일전

28일 EPL 맨유와 홈경기…승리해야 챔스리그 진출 실낱희망

국가대표 에이스 손흥민이 속해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28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중요한 일전을 치른다.

토트넘은 28일 오전 4시 15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유와 홈 경기에 나선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인 2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에서 1-6으로 참패했다.

경기 시작 21분 만에 무려 5골을 얻어맞고 0-5로 끌려가는 등 졸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경기 다음 날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토트넘 선수들은 원정 응원을 왔던 팬 3천여 명에게 입장권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15일 AFC 본머스에도 2-3으로 져 최근 2연패를 당한 토트넘은 맨유와 경기부터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는다.

감독대행이 물러난 자리를 코치가 다시 감독대행으로 메우는 '비상시국'이다.

메이슨 감독대행은 2021년 4월에도 조제 모리뉴 감독이 물러났을 때 감독대행을 맡은 경력이 있다.

손흥민은 8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을 상대로 골을 넣고, 15일 본머스를 상대로도 득점하는 등 2경기 연속 골로 기세를 올리다가 1-6으로 참패한 뉴캐슬과 경기에서는 침묵했다.

16승 5무 11패, 승점 53으로 리그 6위인 토트넘은 4위 맨유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이날 승리가 절실하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려면 4위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4위 맨유가 승점 59로 토트넘보다 6점이나 많고, 경기는 2경기를 덜 치른 터라 토트넘으로서는 4위 이상을 기록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이번 맞대결을 이겨야 승점 차를 3으로 좁힐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유가 2경기를 더 남긴 상태라 여전히 유리하다.

맨유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3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다. 24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강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7-6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토트넘과 맨유의 이번 시즌 리그 맞대결은 지난해 10월 맨유 홈 경기로 열렸으며 맨유가 2-0으로 이겼다.

26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경기에서 거의 2개월 반 만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울버햄프턴 황희찬은 29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졸전' 토트넘 "티켓값 환불해드립니다"

원정 팬 3000여명, 구단 홈피에 신청하면 지급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선수들이 1-6으로 완패한 경기에 원정 응원을 왔던 팬들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토트넘은 26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팬 여러분의 좌절과 분노를 이해한다"며 "어떤 말로도 이미 벌어진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뉴캐슬 원정 응원을 오셨던 팬 여러분께 입장권을 환불해드리겠다"는 선수단의 메시지를 전했다.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2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1-6으로 크게 졌다. 경기 시작 21분 만에 0-5가 되는 등 이례적인 졸전을 펼쳤다.

토트넘은 다음날 이 경기를 지휘한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대행을 해임했다.

구단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원정 응원을 하러 갔던 팬들은 24시간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하고, 신청을 마친 팬들에게는 1주일 안에 환불이 완료된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날 토트넘 원정 팬들이 약 3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서부 강호' 덴버·피닉스, NBA PO 2R 격돌

미국프로농구(NBA) 서부 콘퍼런스의 '강호'로 꼽히는 덴버 너기츠와 피닉스 선스가 나란히 4승 1패로 플레이오프(PO) 1회전을 통과해 2회전에서 격돌한다.

정규리그를 1위(53승 29패)로 마친 덴버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볼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NBA 서부 콘퍼런스 PO 1회전(7전 4승제) 5차전에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112-109로 물리쳤다.

이로써 시리즈 4승(1패)째를 거둔 덴버는 2회전으로 올라섰고, 정규리그 8위(42승 40패) 미네소타는 시즌을 마감했다.

지난 2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간판 센터 니콜라 요키치가 28점 17리바운드 12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을 작성하며 덴버에 4승째를 안겼다.

뤼디 고베르, 칼앤서니 타운스로 이어지는 상대 '트윈 타워'의 높이에 필드골 성공률이 30% 밑으로 떨어졌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무려 9개나 따내며 적극적으로 골밑을 공략했다.

저말 머리도 3점 5방 포함 35점을 폭발하며 외곽에서 화력을 지원했다. 에런 고든, 브루스 브라운도 14점씩 보탰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